

시·군과 ‘전북유학’ 확대 본격 나서

전북교육청, 순창 시작으로 현장 협의회… 거주시설 확보 등 안정적 정착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화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북유학 확대에 본격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시·군 지자체와 협력해 ‘전북유학 확대 및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순창군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임실·진안·정읍 등 전북유학 주요 운영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도청, 교육지원청, 시·군 담당자가 참여하는 현장 협의회를 진행한다.

전북유학은 전북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도내 농어촌 학교로 전학 와 자연환경과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2년 27명으로 시작한 전북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시·군 지자체와 협력해 ‘전북유학 확대 및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5일 순창군에서 현장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학은 지속적인 관심 속에 규모가 확대되면서 2026년 1학기 기준 참여 학생이 333명으로 증가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유학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안정적인 거주시설 확보를 꼽고 있다. 이번 현장 협의

회에서는 지역별 거주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시설 발굴 및 조성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유학생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순창 97명(29%), 진안 82명(25%), 임실 68명(21%)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거주 기반 마련과 향후 확대 방안을 협의한다.

교육청은 이번 시·군 현장 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8~9월에는 도내 전체 전북유학 담당자 회의를 열어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중심이며,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도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와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해 전북유학을 확대하고, 지자체·대학·기업과 적극 협력해 교육과 일자리, 정주여건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2027학년도 유초·중등 신규교사 307명 뽑는다

전북교육청 사전 예고… 유초등 67명·중등 240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중등학교 신규 교사 307명을 선발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 예정 인원을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선발 예정 인원은 유·초등 교사 67명과 중등 교사 240명 등 총 307명으로, 지난해 최종 선발 예정 인원 451명보다 144명이 줄었다.

유·초등 분야는 유치원 교사 7명, 초등교사 52명(장애 5명 포함), 특수유치원 교사 1명, 특수초등 교사 7명(장애 1명 포함)을 선발할 예정이다.

중등 분야는 국어 17명, 영어 21명, 수학 16명, 체육 7명, 보건 28명, 음악 12명, 사서 6명, 전문상담 24명, 특수(중등) 32명 등 모두 27개 과목에서 240명을 선발한다.

보건 교사는 유치원 5명, 초등 16명, 중등 5명으로 학교급별로 구분해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응시한 국공립 학교급에 배치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전 예고 인원이 교원 정원 변동과 퇴직, 휴·복직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것으로, 최종



선발 인원은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계획 공고는 유·초등 교사가 오는 9월 9일, 중등 교사가 9월 30일 각각 발표된다. 원서 접수는 유·초등은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중등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1차 시험은 유·초등은 11월 7일, 중등은 11월 28일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2027학년도 체육 실기평가 종목에 대한 세부 내용도 함께 공개돼 체육 과목 응시자는 시행계획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의 알림마당·시험·채용·구직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기자

임실 치즈·문화관광으로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전주대 RISE사업단 주최
임실에서 로컬 브랜드 캠프
체류형 관광 아이디어 논길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 평생학습지원센터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임실군 지정함동동체학교에서 '2026 J-커뮤니티캠퍼스 임실 로컬브랜드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전북특별자치도 RISE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J-커뮤니티캠퍼스 프로그램으로, 임실에 관심 있는 전북 지역 주민들이 함께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브랜드를 기획하는 주민참여형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캠프는 로컬브랜드 특강, 지역자원 탐색, 브랜드 기획, 전문가 멘토링, 팀 프로젝트, 최종 발표 및 심사 순으로 운영됐으며, 참가자들은 치즈와 문화관광 등 임실의 대표 자원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한 다양한 브랜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최종 심사에서는 ‘임실코미’ 팀이 1등을 차지했다. ‘임실코미’는 임실의 빈집과 자연, 음식을 활용해 방문객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고, 다시 임실을 찾는 관계인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 평생학습지원센터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임실군 지정함동동체학교에서 '2026 J-커뮤니티캠퍼스 임실 로컬브랜드 캠프'를 개최했다.

구를 만드는 체류형 문화관광 브랜드를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범촌·비움·채움·나눔·회복·귀환'으로 이어지는 회복의 여정을 브랜드 스토리로 설계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제시한 점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 평생학습

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임실에 관심 있는 전북 지역 주민들이 함께 지역의 가능성을 고민하고 새로운 로컬브랜드를 기획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J-커뮤니티캠퍼스를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주민참여형 교육과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 평생학습지원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RISE사업의 일환으로 J-커뮤니티캠퍼스를 운영하며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과 지역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수능체제 평가문항 개발 전문가 키운다

전북교육청, 교사 100명 대상 실습 중심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대학수학능력 시험 등 국가 수준 평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5일부터 7일까지 무주드림연수원에서 2026년 수능체제 평가문항 개발 전문가 양성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수능형 평가문항 개발 역량을 갖춘 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도내 수능 출제·검토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비롯해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도내 고등학교 교사 100명이 참여한다. 특히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교과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분반 형태로 운영된다.

연수 과정은 국가 단위 시험의 실제 출제 절차를 반영해 구성됐다. 비대면 이론 연수 6시간과 개인별 문항 개발 과제, 대면 실습 연수 24시간으로 진행되며, 참가 교사들은 평가 원리와 출제 지침을 익힌 뒤 직접 문항 개발과 검토, 문항 이력 분석, 문항 평가 등을 수행한다.

특히 실제 수능 출제 과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습이 이뤄져 교사들이 평가문항 개발 과정 전반을 경험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강사진에는 수능 연계교재 수석 집필진과 국가 단위 시험 출제 경험이 있는 교수·교사 등 28명이 참여한다. 분반별 2인 1조 방식의 밀착 지도를 통해 참가 교사들의 문항 개발 역량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수 이수자는 영역별 미니 모의고사와 수능 학습지원 자료를 개발해 제출하며, 우수 이수자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연계교재 집필 및 검토진, 전국 연합학력평가 출제·검토진, 전북교육청 문항 분석·개발팀 등에 우선 추천된다.

최은이 전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수능형 평가문항 개발 역량은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는 수업과 평가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국가 수준 평가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 교원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AI 기반 교육행정 업무 혁신

전북교육청, AI 에이전트 실무추진단 출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교육행정 전반에 도입해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스마트한 행정 환경 구축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AI 에이전트 기반 업무혁신 실험을 위해 'AI 활용 교육행정 업무 혁신 실무 추진단(TF)'을 구성하고, 5일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 추진단은 천호성 교육감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AI 기반 교육행정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전문직, 교원, 교육행정직, 전산직 등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직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AI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교육행정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협력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은 물론 보안성과 기술성 검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주요 추진 과제는 △AI 활용 교육행정 업무 자동화 △AI 통합 플랫폼 구

축 △현장 검증 및 피드백 등이다.

AI 활용 교육행정 업무 자동화 사업은 단순 반복적인 행정 업무 가운데 AI와 RPA(업무자동화) 적용 효과가 높은 분야를 선정해 3개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자동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AI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과 업무 고충을 분석·학습해 교직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전북형 AI 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개발된 AI 서비스는 추진단 소속 학교와 부서에 우선 적용해 현장 감증을 진행하고, 실제 업무 담당자가 체험할 수 있는 개선 효과를 확인한 뒤 확대에 나갈 계획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현장 교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무 추진단을 통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해결하는 실질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반복 업무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교직원들이 교육 본연의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행정 환경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우석대, 2027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교과 1359명·실기실적 307명 등 총 1666명
AI융합학부 등 신설… 자율전공학부 운영도 강화

우석대학교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전주·진천캠퍼스 40개 학과에서 총 1,666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 1,359명, 실기/실적전형 307명 등 총 1,66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정원 내에서 교과면접 218명, 교과 707명, 지역인재1(전북) 13명, 지역인재2(호남) 95명, 지역인재(기회균형) 6명, 성인학습자 116명을 선발한다. 정원 외 모집은 기회균형 28명, 농어촌학생 35명, 장애인 20명, 성인학습자 123명이다.

실기/실적전형은 정원 내 실기일반 160명, 실적우수자 105명, 특기자 24명을 비롯해 정원 외 기회균형과 농어촌 학생 각각 9명을 모집한다.

교과면접전형은 단계별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교과성적 100%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교과전형과 지역인재전형 성인학습자전형 등은 교과성적 100%로 평가한다.

우석대학교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미래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과 개편과 신설도 추진한다.

전주캠퍼스에는 AI융합학부와 체육 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하고, 진천캠퍼스에는 경찰범죄심리학과, 체육 자율전공학부, 글로벌라이프 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해 첫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기존 학과 명칭도 미래 산업 수요에 맞춰 변경된다. 전주캠퍼스 호텔외식조리학과는 조리제과제빵학부로, 수소테크자율전공학부 내 전기자동차공학부는 AI모빌리티공학부로 개편했다. 진천캠퍼스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



과는 건축학부로, 글로벌문화경영학부는 글로벌디자인문화경영학부로, 생명과학과는 바이오융합학과로 각각 변경됐다.

특히 전주캠퍼스 체육 자율전공학부, 휴먼테크 자율전공학부, 수소테크 자율전공학부와 진천캠퍼스 체육 자율전공학부, 휴먼테크 자율전공학부 신입생에게는 첫 학기 등록금의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사회배려 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의약·보건계열 정원 외 모집도 확대한다. 간호학과는 기회균형 5명과 농어촌학생 6명, 약학과는 기회균형 4명과 농어촌학생 4명, 한의학과는 기회균형 4명과 농어촌학생 4명을 선발한다.

또한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자율전공학부 운영도 강화한다. 자율전공학부 입학생은 1학년 동안 다양한 교육을 받은 뒤 2학년부 터 희망 학과에 배정받아 적성과 진로에 맞는 학업 설계가 가능하다.

다만 군사학과와 군사외교학과는 학과별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한해 배정된다.

한편 우석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우석대학교 입학정보 통합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2026 수업명장 교사 현장체험 연수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교원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6 수업명장 교사 현장체험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정읍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연수는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중 기초학력 신장 수업 공개 및 나눔 등 교육과정 활성화에 앞장서 온 우수 교

사 104명이 참가했다.

연수는 학교급별 특성에 맞춘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중·고·특수교사 중심의 1차 연수(7월 27일~28일)와 유·초·특수교사 중심의 2차 연수(8월~9월)로 나누어 각각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진행됐다.

교사들은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토의와 사례 발표를 통해 수업 혁신 방안과 기초학력 지원 전략을 공유했다.

/정읍=김대환 기자